

中南美

中南美 一般

7월 15일 • 중남미 국별 외채 현황

라틴아메리카 의회 자료에 따르면 중남미 최대 외채국은 멕시코이고, 1인당 최대 외채국은 아르헨티나로 나타남. 국가별 외채를 살펴보면 멕시코 1,684억 9,700만 달러, 브라질 1,550억 달러, 아르헨티나 967억 3,100만 달러, 베네수엘라 290억 달러, 페루 266억 5,300만 달러, 콜롬비아 220억 달러, 칠레 200억 달러, 에콰도르 145억 달러, 우루과이 76억 달러이고, 국가별 1인당 외채는 아르헨티나 2,714달러, 우루과이 2,285달러, 멕시코 1,793달러, 베네수엘라 1,727달러, 칠레 1,466달러, 브라질 949달러, 페루 917달러, 콜롬비아 515달러임.(Clarín紙)

멕시코

7월 1일 • DOMOS社, 미국의 제재조치 철회 요구

쿠바국영전화회사인 Etecsa社와의 관련여부로 헬름스-버튼법에 따라 임원과 그 가족들의 미국 비자발급에 제한받은 DOMOS社가 쿠바에서 사업을 철수한 점을 들어 同 제재를 철회해줄 것을 국무성에 요청함. 몬테레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 DOMOS 그룹은 94년 11월 Etecsa社 지분 49%를 지주회사인 Utisa社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그러나 95년 이탈리아의 Stet Spa社에 同 지분 25%를 2억 9,600만 달러에 매각한 바 있고, Utisa社에 지불한 4억 5,000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음.(Reuter)

• 하반기 경제성장 최대 제약요인, 낮은 임금증가율

멕시코중앙은행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성장 최대 장애요인은 낮은 임금상승이고, 다음으로는 자금이용 제한, 금융환경, 그리고 내채수준임. 즉 임금비용 상승과 인플레이 압력은 경제성장 장애요인이 되지 않으며, 선거 등의 정치적 요인도 별다른 제약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 한편, 경제학자들의 평균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은 2/4분기 5.51%, 금년 4.91%임.(Reuter)

• IFE, 공정선거 전망

울덴베르그(Jose Woldenberg)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중간선거가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공정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함.(Reeuter)

7월 2일 • 사빠띠스다, 중간선거 보이콧 선언

사빠띠스다 반군 부사령관인 마르코스는 남동부 4개州에 거주하는 원주민들과 사빠띠스다 및 비상사빠띠스다들이 연방 및 지방정부의 무력진압과 내전촉진 분위기에 대한 대항하여 이번 중간선거를 보이콧할 것임을 선언함. 선거거부

운동이 얼마만큼 빠르게 확산될지는 의문이 있으나 최소한 치아빠스주 남동부에 거주하는 약 40,000여명이 이에 동참할 것이며, 다음으로 EPR이 활동하고 있는 오아사까州, 게레로州, 이달고州로 확산될 것이라고 발표함. 한편, 同 보이콧은 최근 EPR의 일방적인 휴전발표속에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있는 사빠띠스파 반군의 최소한의 저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3일자 Reuter)

• **美상공회의소, NAFTA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美상공회의소가 멕시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NAFTA가 회원국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발하고 있음. 가장 많이 언급된 효과는 관세인하 등으로 인한 비용절감임. NAFTA 비판의 중심이 되고있는 환경 및 노동환경 문제는 오히려 NAFTA체제아래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함. 한편, 무역장애 요소는 일부 관세장벽의 지속, 혼란스런 라벨링 규정, 기타 비관세 장벽 등으로 나타남. 同 결과는 행정부의 의회보고서 내용에 공식적으로 사용됨.(Reuter)

• **7억 5,000만 마르크 유러본드 발행 마무리**

멕시코는 11년 만기 7억 5,000만 마르크의 유러본드를 성공적으로 기채함으로써 지난달 발표한 60억 달러 차환계획을 마무리함.(Reuter)

• **HSBC James Capel 증권사, 97년 멕시코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HSBC증권사는 2/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을 4%에서 5.5%로, 97년 경제성장률을 3.5~4%에서 4.4%로 상향 조정하고, 年末 폐소환율이 달러당 8.45페소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전망은 4월 공업 및 제조업 생산 활성화, 5월 제조업 생산 활성화 전망, 4~5월 소비증가, 년초 계획보다 증가한 통화량(재정지출확대) 등에 바탕을 두고있음.(Reuter)

• **외환보유고 증가**

멕시코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 27일 기준 총외환보유고가 증가추세를 유지, 216억 9,500만 달러, 순외환보유고는 141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함. 증가원인은 중앙은행이 연방정부로부터 2억 9,700만 달러를 순매입하고, 채권발행에서 옵션을 행사하여 신용기관으로부터 2,000만 달러를 매입했기 때문임. 또한 Pemex의 경영소득 1억 7,000만 달러와 중앙은행이 보유한 非달러화 자산과 부채를 달러가치로 전환하는 등의 기타 요인들에 의한 3,900만 달러 收入 등이 외환보유고 증가에 기여함.(Reuter)

7월 3일 • 재무부, 98년 MBS 발행 계획

재무부는 내년부터 최초로 저당대출담보부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국내 투자은행들과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함. 멕시코 은행들은 94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까지 부동산담보대출금의 체납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왔음.(Reuter)

7월 7일 • 까르데나스 후보, 권력이양 전담팀 구성 발표

6일 실시된 멕시코市선 시장선거후 당선이 확실시되는 PRD의 까르데나스 후

보가 금년 12월 5일 취임하기에 앞서 평화적인 권력이양과 내년 市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임시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함. (Reuter)

7월 9일 •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89%

7월 10일 • EU회원국 상주대표, 멕시코 • EU간 자유무역 잠정협정 가조인 연기 요청

EU 회원국 상주대표들은 관세조항 미검토를 이유로 EU 집행위원회에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 가조인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함. 한편,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인권조항과 海運 문제는 무난히 해결된 것으로 알려짐. (11일자 Agence Europe)

• 5월 무역수지 흑자, 2억 2,000만 달러

재무부는 5월 무역수지가 수출 88억 1,100만 달러, 수입 85억 9,100만 달러에 힘입어 2억 2,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수정 발표함. 총수출 가운데 석유부문은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한 9억 1,700만 달러로 10.4%, 제조업 부문은 同 11.9% 증가한 75억 1,600만 달러로 85.3%, 농업부문은 同 9.2% 감소한 3억 3,700만 달러로 3.8%, 기타 광업이 0.5%를 담당함. 총수입 가운데 중간재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67억 3,100만 달러, 자본재는 同 31.8% 증가한 12억 700만 달러, 소비재는 同 29.6% 증가한 6억 5,300만 달러를 기록함. 이로서 5개월간 총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기보다 13.6% 증가한 수출(430억 달러)과 同 19.5% 증가한 수입(412억 1,600만 달러)으로 7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함. (Reuter)

7월 11일 • 美행정부, NAFTA 보고서 의회 제출

美 행정부는 자국경제에 다소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 “NAFTA 출범 3년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 그러나 사실상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어 NAFTA 확대를 위한 신속처리협상권 획득과정에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NAFTA 반대론자들은 同 보고서가 NAFTA 출범후 발생한 실업, 노동조건, 실질임금, 환경, 마약, 식품 및 도로안전 등의 문제점들은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함. (Reuter/ 월간동향 참조)

• 기업 • 노조 • 농민 • 상인 대표, NAFTA 재협상 요구

멕시코 중소기업, 노조, 농민, 상인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상공부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무역자유화가 농업, 축산업, 제조업 등 멕시코 경제 전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 NAFTA의 개정을 요청함. 또한 同 단체는 멕시코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무역협정(중남미 국가들, EU, APEC, FTAA 등) 협상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함. (La Jornada)

• 1~4월 FDI, 전년동기대비 22% 증가

상공부(SECOFI)는 금년 1~4월 잠정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10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연말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90억 달러 수

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4월까지 외국인투자등록국(RNIE)에 등록된 투자규모는 전년동기의 2억 5,400만 달러보다 22% 증가한 3억 900만 달러를 기록함.(EIU)

• 멕시코 중간선거 결과 PRI 참패(중남미동향 참조)

7월 15일 • 5월 공업생산, 9% 증가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5월 공업생산이 광업(석유 포함) 6.2%, 제조업 8.7%, 건설업 13%, 전기·가스·수도 4.8%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함. 이로서 1~5월간 공업생산은 광업(석유 포함) 3.2%, 건설업 11%, 제조업 8.7%, 전기·가스·수도 5.4%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함.(Reuter)

7월 18일 • EPR, 반정부 투쟁 지속 선언

• 5월 시멘트 생산, 257만 4,000톤 기록

멕시코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금년 5월 시멘트 생산이 전년동기 212만 톤보다 21.4% 증가한 257만 4,000톤으로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Reuter)

• 5월 소매판매, 4.4% 증가

통계청(INEGI) 발표에 따르면 5월 소매판매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함.(Reuter)

• 6월 실업률 3.4%

• CTM, 노동법 개정 추진

멕시코노총은 기초식품 소비자가격 및 인플레이 유발 효과가 있는 임금인상 대신에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방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同 방안으로 현행 연간 1회 지급받는 이윤분배금을 분기별로 지급받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임.(El Financiero)

7월 21일 • 97년 농업(곡물부문)지원금 30억 페소 증액

국가농업위원회(CNA) 발표에 따르면 금년 곡물생산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5억 페소에서 35억 페소로 증액됨. 지원금 증액의 주요원인은 정부의 곡물증산정책에 의하여 생산은 증가된 반면,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임. 멕시코는 기초곡물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곡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 왔음.(Reuter)

7월 22일 • 재계 및 노동계, 야당의 VAT 감축안 반대

멕시코 경영자협회(CCE)는 야당이 중간선거 공약으로 제안한 부가가치세(VAT) 인하(현행 15%에서 10%로 이하)가 재정적자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이유로 반대함. 즉 VAT 인하는 약 1% 이상의 재정적자를 의미하고 있어 同 적자를 보전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함. 또한 친정부 노조인 멕시코노총(CTM)도 VAT 인하에 반대하고 있음. 한편, 재무부는 VAT 인하로 약 200억 페소의 세금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함.(Reuter)

• 멕시코 농업부문, NAFTA 개방확대 희망

멕시코 농업부문은 출범 3년 6개월이 지난 NAFTA 체제내에서 협정의 근본적 목적인 무역확대 측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회원국과의 농축산물 교역 적자폭은 확대되었다고 주장함.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적자의 확대(수입증가, 수출유지)가 근본적으로 미국의 수입제한(돼지고기 및 밀), 상호 쿼터량 제한, 그리고 부당한 국내 농산물 보호조치에 있다고 주장함. 96년 NAFTA내에서 멕시코의 輸入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46억 5,400만 달러를, 수출은 33억 8,500만 달러에 불과함. 국가농업위원회(CNA)는 금년 멕시코의 對NAFTA 농축산물 수입은 63억 달러, 수출은 4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Reuter)

7월 23일 • 6월 무역수지 1억 8,200만 달러 흑자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6월 잠정 무역수지가 전망치보다 높은 1억 8,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금년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규모(잠정치) 또한 19억 6,500만 달러로 증가함. 그러나 전년동기 흑자(96년 6월 7억 6,600만 달러, 1~6월 41억 3,200만)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 6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1.2% 증가한 92억 2,900만 달러, 수입은 同 32.1% 증가한 90억 4,700만 달러를 기록함. 그리고 금년 상반기 수출은 同 14.8% 증가한 522억 2,800만 달러, 수입은 同 21.6% 증가한 502억 6,300만 달러를 기록함. 6월 수출증가세는 27%나 증가한 제조업 부문 수출(80억 7,400만 달러)이 주도한바, 마킬라도라 산업수출이 30.3%, 비마킬라도라 산업수출이 24.2% 각각 증가함. 이로써 97년 상반기 제조업 수출은 16.8% 증가함. 한편, 6월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은 8억 5,4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3%나 감소한바, 이는 수출량 및 국제원유가격 하락에 기인함. 그러나 상반기 석유수출은 5.4% 증가함. 6월 농업수출은 2억 6,500만 달러로 11.8%, 상반기 수출은 5.3% 각각 증가함. 상반기 광업수출은 2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함. 멕시코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재 수입은 6월 6억 9,2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9.2%, 상반기에 39억 1,800만 달러로 同 34.6% 증가하고, 중간재 수입은 6월 71억 달러로 同 26.7%, 상반기에 394억 7,500만 달러(재수출용 17.3%, 내수용 19.1% 각각 증가)로 同 17.9%함. 또한 자본재 수입은 6월 12억 5,500만 달러로 同 47.6%, 상반기에는 68억 7,00만 달러로 同 39% 증가함. 특히 상반기 수출용 자본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1.9%, 그리고 비수출용 자본재 수입은 同 37.4% 증가함.(Reuter)

• 멕시코 · EU, 잠정무역협정 가조인

멕시코와 EU는 6월 10~11일 브뤼셀에서 체결한 포괄적 무역협정의 前단계인 잠정협정을 가조인함. 지난 10일 EU회원국 상주대표들은 EU집행위원회에 관세조항 미검토를 이유로 잠정협정 가조인 연기를 요청한 바 있으나 18일에 이를 승인함.(European Report)

7월 24일 • 6월 백화점 판매, 3.7% 증가

전국셀프서비스업 및 백화점협회(ANTAD) 발표에 따르면, 6월 백화점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하고, 슈퍼마켓 판매는 同 0.9% 감소함. 이로서 상반기 백화점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반면에 슈퍼마켓 판매는 同 1.3% 감소함.(Reuter)

7월 28일 • 5월 제조업 고용 5.7% 증가

통계청(INEGI) 발표에 따르면 5월 제조업 부문 평균고용이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함. 또한 제조업 부문 평균노동시간은 6.2%, 실질임금은 0.9% 증가함.(Reuter)

7월 29일 • 파나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완료 합의

멕시코를 방문중인 바야다레스(Ernesto Perez Balladares) 파나마 대통령과 세 디요 대통령은 98년 4월까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데 합의함. 멕시코는 중미 국가들 중 코스타리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국가들과는 협상을 진행중임. 금년 5월까지 양국간 교역규모는 1억 60만 달러이고, 멕시코가 8,46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30일자 Reuter)

• 5월 마길라도라산업 생산, 13.3% 증가

통계청(INEGI) 발표에 따르면 5월 마길라도라산업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함. 이로서 5개월간 생산도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同 부문의 5월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20.8%, 근로시간은 12.2% 각각 증가함.(Reuter)

• Reforma紙, 금년 상반기 공공재정 290억 페소 흑자 주장

멕시코 유력 일간지인 Reforma紙는 금년 상반기 정부재정이 전년동기(42억 페소)보다 463% 증가한 290억 페소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함. 흑자원인은 재정수입은 14.5% 증가한 2,430억 페소를 기록한 반면, 재정지출이 3.3% 증가한 2,140억 페소에 그쳤기 때문으로 분석됨. 한편 재무부는 Reforma紙의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정확한 상반기 재정현황을 8월 15일경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Reuter)

7월 30일 • 멕시코, MERCOSUR 가입 희망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중인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창설 준비모임에 참석중인 자블루도프스키(Jaime Zablodovsky) 상공차관은 멕시코의 MERCOSUR 가입을 희망함. 구체적인 협상방식은 제안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가입한 칠레와 볼리바르의 가입방식을 따를 전망이다. 멕시코는 MERCOSUR 회원국들과 개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협정으로 구체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음.(31일자 Reuter)

• 96-97시즌 설탕생산, 454만톤 기록

농산업설탕위원회는 96-97시즌(11~7월) 최종 설탕생산량이 전년시즌 4,377,453톤 보다 3.8% 증가한 4,543,851톤을 기록했다고 발표함.(Reuter)

- 7월 31일 • 멕시코국영석유회사(PEMEX), 19% 임금인상 합의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PEMEX가 멕시코석유노조와의 협상에서 8월 1일부로 19%의 임금인상과, 1%의 추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함.(Reuter)

남미南部共同市場

- 7월 24일 • MERCOSUR, 지역단일통화 도입문제 검토키로
남미南部共同市場(MERCOSUR) 회원국들은 최근 지역 단일통화 도입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함. 同 사안은 금년초 브라질에서 열린 한 각료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은행가들에게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음.(일간무역)

브 라 질

- 7월 2일 • 브라질-인도 농산품 협정체결(Voz do Brasil)
7월 7일 • 상파울루주 민간기업, 6월 4,278명 감원(Reuter)
• 5월 공업판매, 전월대비 5.93% 감소(Reuter)
7월 8일 •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전년동기대비 52% 증가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자본유입이 7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2.8% 증가함. 한편, 6월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0억 달러로 전월(17억 달러)보다 다소 감소하였음.(Gazeta Mercantil)
• 상원, 통신산업 민영화 법안 가결(Reuter)
• 7월 1~6일 무역수지 1억 2,400만 달러 적자
상공부에 따르면, 7월 1~6일 동안의 무역수지는 1억 2,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는바, 수출 9억 2,100만 달러 및 수입 10억 4,500만 달러였음. 한편, 지난 6월의 무역수지는 4억 8,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음.(Reuter)
7월 9일 • 휴대전화 B-band사업 고액에 낙찰
휴대전화 B-band의 1지역(대상파울루권) 및 9지역(바이아주 및 세르지페州)의 입찰 결과, 1지역은 BCP콘소시엄이 최저가격을 341% 상회하는 26억 4,700만 레알(1달러=약1레알), 9지역은 위크냐콘소시엄이 최저가격을 8.26% 상회하는 2억 4,900만 레알에 낙찰하여, 각각의 경영권을 획득함.(23일자 通商弘報)
• 국내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 9월에 민영화
국가민영화심의회(CND)는 산투스항 컨테이너 터미널(TECON) 입찰을 오는 9월 17일 상파울루 증권거래소에서 실시할 것을 승인하였는바, 同 입찰건의 최저가격은 1억 118만 레알(1달러=약 1레알)로 7월말까지 공시될 예정임.(28일

자 通商弘報)

7월 10일 • 6월 외환보유고 575억 9천만 달러(Reuter)

7월 11일 • 정부, 설탕류 수출에 대한 세금 면제키로

중앙은행은 시장의 규제완화를 위한 첫번째 조치로서 수출쿼터를 초과하는 설탕 및 관련제품에 부과했던 40%의 국내소비세(excise tax)를 면제키로 함. 설탕에 대한 최고세율은 40%였고, 관련제품에 대한 평균세율은 20%였음. 한편, 美國 농업부 전망에 따르면, 브라질은 금년에 1,480만 톤의 설탕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사탕수수 재배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됨.(14일자 M.H.)

• 6월 연방세 수입 85억 9,900만 레알로 전년동월(77억 9천만 레알)대비 10.38% 증가(Reuter)

• 상원, 통신일반법안 가결

상원은 지난 1996년 12월에 제출된 통신일반법안을 찬성 58, 반대 13으로 가결함. 同 법은 통신부문에의 민간참여관련 기본 규정으로서, 브라질 통신공사(Telebras)의 민영화와 자유화 후의 통신부문을 감독하는 국가통신청(ANTEL) 창설을 목적으로 함.(30일자 通商弘報)

7월 15일 • 정부, IDB에 99년까지 64억 1,200만 달러의 차관 요청

브라질 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에 1999년까지 64억 1,20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요청하였는데, 그 가운데 3억 8,500만 달러는 행정개혁, 27억 달러는 이른바 '브라질코스트' 삭감, 24억 달러는 사회프로젝트, 8억 5,100만 달러는 환경사업에 사용할 방침임.(Reuter)

7월 17일 • 브라질 정부, 기아車에 쿼터 확대 배정

한국과 브라질은 최근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자구노력을 돕기 위하여 올해 우리나라가 브라질에 수출키로 한 쿼터량 중 남은 물량을 모두 기아에 배정, 기아차가 브라질에 집중 수출되도록 하였음.(18일자 한국)

7월 18일 • 금년 민영화 수익 140억 달러에 달할듯

칸디르(Antonio Kandir) 기획부장관에 따르면, 금년의 민영화에 따른 수익이 연초에 목표로 하였던 10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선 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Reuter)

• 世界銀行, 브라질에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차관 승인

세계은행에 따르면, 브라질의 공공서비스부문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기술적 권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승인하였음.(Reuter)

7월 21일 • 금년 부채상환액 200억 달러

브라질의 공공 및 민간부문은 금년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총 2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uter)

7월 22일 • 모타 통신장관, Telebras 매각 기대

모타(Sergio Motta) 통신장관은 Telebras社의 민영화가 1998년 상반기내에 실행될 것으로 전망함.(Reuter)

- 7월 1~22일 외환보유고, 전월대비 22억 달러 증가한 598억 1,300만 달러 (Reuter)

- 태국-브라질, 경제협력 강화키로

브라질을 공식방문중인 인트라위타야난(Pitak Intrawithayanunt) 외무차관은 브라질의 외무차관과 양국간 협력강화를 논의하는 한편, 그의 일환으로 교역 및 관광 촉진을 위하여 상대국가 국민에게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함.(Bangkok Post)

- 7월 23일 • 상반기 알루미늄 국내 판매 13.3% 증가

브라질 알루미늄협회(Brazilian Aluminium Association)에 따르면 상반기(1~6월) 동안의 알루미늄 판매는 104,800톤으로 전년동기(92,500톤) 대비 13.3% 증가하였음.(Reuter)

- 상파울루市 6월 실업률 16.0%

노동자연합통계연구소(Labor Union Statistics Institute; Dieese)에 따르면 상파울루市의 실업률이 16.0%로 전년동월(16.2%)에 비해 다소 하락함.(Reuter)

- 가전제품시장 확대

브라질 전자공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가전제품시장은 1995~1996년 사이 26.4% 성장하였음. 이러한 성장률을 주도한 제품은 VCR 및 TV로 27.2% 성장하여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였으며, 그외 각종 가정용 기구 및 휴대제품들은 각각 26.1% 및 16.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이렇듯 가전제품시장이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브라질 가전제품산업과 경제전반에 획기적인 변화 즉, 금융조건 개선, 저금리 정책, 디플레이션, 저가품 제조 등에 힘입은바 큼.(KOTRA 海外市場)

- 7월 24일 • 태국 외무차관, 브라질 공식방문 마침

피탁 인트라위타야난(Pitak Intharawitthayanan) 태국 외무차관은 그의 브라질 공식방문을 마쳤음. 동 방문기간중 외무차관보는 태국의 FAO가입에 대한 브라질의 지지를 요청함.(Voz do Brasil)

- 7월 25일 • 정부, 약 3,700 품목에 대한 수입세 면제 혜택 철폐키로

정부는 자본재를 중심으로 하는 약 3,700개 품목의 수입세에 대한 면세혜택을 철폐할 것을 골자로 하는 법령을 공포함. 그러나, 통신장비 부속품에 대한 면세혜택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인바, 이는 브라질 통신부문의 민영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 정책적 배려로 풀이됨.(Reuter)

- 좌익정당-노동조합, 전국적 총파업 요구(Reuter)

- 볼리비아-브라질間 가스파이프라인 건설공사 착수(Reuter)

- 7월 28일 • 6월 23~7월 23 인플레이 0.59%(Reuter)

- 7월 29일 • 로올라(Gustavo Loyola) 중앙은행총재 사퇴

중앙은행은 로욜라(Gustvo Loyola) 총재가 사퇴함에 따라 프랑코(Gustavo Franco)대외국장을 신임총재로 임명함.(Reuter)

7월 30일 • 상파울루주, 6월 공업생산 13% 증가

6월 상파울루주의 공업생산은 5월의 6%에서 다소 상승한 6.09%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동안의 실업률은 5.74%로 전년동기의 5.86%보다 다소 하락하였음.(Reuter)

• WTO, 브라질의 對EU 가금류 수출관련 제소건 검토를 위한 패널 구성(Reuter)

• 공중위생부문 민영화키로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100일 이내에 공중위생부문의 민영화를 위한 콘소시엄을 선정기로 함. 정부는 상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향후 15년간 25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10억 달러만이 투자되는 열악한 상황을 감안, 同 부문의 민영화를 실시키로함. 또한 BNDES와 연방주택은행(CEF; Caixa Economica Federal)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중위생서비스 민영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천만 달러의 신용을 제공키로 함.(Reuter)

• 6월 실업률 6.09%

통계청(IBGE)에 따르면, 6월의 실업률은 6.09%로 전월(6%)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 한편 상반기의 실업률은 5.74%로 전년동기(5.86%)대비 소폭 하락함.(Reuter)

7월 31일 • IDB-日本 수출입은행(Ex-Im Bank), 브라질에 대출

美洲開發銀行(IDB)은 日本의 수출입은행과 50:50의 비율로 브라질에 총 15억 달러의 자금을 대부하기로 함. 同 융자금은 브라질의 간선도로망 개선 프로젝트 및 민간기업들의 생산설비 확충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대출될 것임.(Jiji Press)

• 1997년 GDP 4% 성장 전망

기획부 산하 경제정책연구소(IPEA)에 따르면, 최근 공업생산의 부진으로 인하여 97년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4.4%)보다 다소 낮아진 4%에 머물것으로 전망함. 부문별 성장률은 농업 6.4%, 건설 4.2% 및 서비스 3.4%로 예상함.(Reuter)

• 정부, 파리클럽에 2억 235만 달러의 원리금 상환

중앙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클럽(Paris Club)에 2억 235만 달러 상당의 원리금(원금 1억 9,256만 달러, 이자 979만 달러)을 상환키로 하였는데, 미국에 6,026만 9천 달러, 영국 2,056만 3천 달러 및 이탈리아에 4,345만 3천 달러 등을 상환할 예정임.(Reuter)

• 외국자본, 상반기 M&A 주도

KPMG Peat Marwick 컨설팅회사 조사에 따르면, 1997년 상반기 국내기업 M&A는 총 172건으로 그중 86건은 외국기업에 의한 것임. 1992년부터 1997년 6월 동안 총 1,005건, 330억 달러 상당의 M&A가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567

건, 200억 달러 상당의 M&A는 외국기업에 의한 것이었음. 96년의 M&A는 328건으로 95년에 비하여 53% 증가한 바 있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는 165건이었음.(Reuter)

아르헨티나

7월 1일 • 6월 租稅收入 전년동월대비 6% 증가

6월 조세수입이 전년동월대비 6.1% 증가한 약 41억 페소를 기록했다고 經濟部가 발표함.(Reuter)

7월 2일 •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2% 증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전월대비 0.1% 감소했다고 經濟部가 발표함.(Reuter)

• 97년 인플레 0.7% 전망

지난 96년 0.054%를 기록한 인플레는 97년에도 0.7%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EIU)

7월 3일 • 6월 自動車生産 전년동월대비 40.6% 증가

6월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40.6% 증가한 36,570대를 기록했다고 아르헨티나自動車協會(ADEFA)가 발표함. 6월 자동차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4.1% 증가한 35,774대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1.8% 증가한 16,868대를 기록함. 97년 1~6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했으며, 판매는 16.7%, 수출은 96.9% 증가함.(Reuter)

• 아르헨티나建設業協會, 270억 달러 프로그램 제출

아르헨티나의 建設業協會會長은 향후 3~4년에 걸쳐서 550,000건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270억 달러의 인프라 프로그램案을 行政府에 제출함.(Reuter)

7월 5일 • 97년, 98년 貿易收支 및 經常收支 악화 전망

EIU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아르헨티나의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는 97년에 각각 8억 달러와 69억 달러, 98년에 각각 27억 달러와 94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輸入은 97년에 약 20% 증가한 268억 달러를, 98년에 12% 더 증가한 30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며, 수출은 브라질의 수요 감소 및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97년에 260억 달러, 98년에 27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가 97년 여전히 GDP대비 2.2%, 98년에 GDP대비 2.8%로 유지될 것이므로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자금조달 문제는 크게 대두될 것 같지 않음.(Reuter)

7월 8일 • 5월 貿易赤字 4,900만 달러 기록

5월 무역수지는 4,900만 달러 적자로 기록되었다고 경제부가 밝힘. 同月 수출은 24억 8,000만 달러, 수입은 25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함. 97년 1~5월 동

안 수출은 전년동기 91억 4,000만 달러에서 14% 증가한 104억 2,000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기 87억 2,000만 달러에서 31% 증가한 114억 6,000만 달러를 기록, 10억 4,0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함.(Reuter)

• 아르헨티나, 10대 이머징 마켓중 투자위험도 최하위

DRI/McGraw-Hill이 발표한 "Country Risk Review"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폴란드 및 멕시코는 세계 10대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s)중 향후 5년간 투자위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정부정책, 국내 정치 및 경제 위험요소를 포함하여 50개 이상의 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투자위험도가 낮게 측정된 국가별 순위는 다음과 같음. ①아르헨티나, ②폴란드, ③멕시코, ④터키, ⑤인도 ⑥브라질 ⑦러시아 ⑧인도네시아 ⑨중국 ⑩남아프리카공화국 順임.(Reuter)

7월 10일 •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 FDI 유입 급증의 主要因

아르헨티나는 지난 90~95년간 180억 달러 이상의 FDI를 유치하여 세계 FDI 유치 순위 15위를 기록함. 현지 Research Centre for Transformation(Cenit)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90년대 對아르헨티나 외국인투자를 유인한 세가지 요인이 다음과 같다고 밝힘. 첫째 주로 공기업 민영화 및 수입자유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 둘째 자유로운 외국인투자법(아르헨티나의 동 분야 법은 중남미 여타국들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함), 셋째 거시경제환경의 안정화(물가 안정, 외채 부담 경감, 재정적자 축소)임.(Reuter)

7월 17일 • 지난 1년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 220,000건의 고용 창출

지난 1년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에서 총 220,000건의 고용이 창출되었다고 Clarin紙가 발표함.(Reuter)

• 메넬 대통령, 97년 아르헨티나 경제성장 8% 전망

메넬 대통령은 97년 아르헨티나의 GDP 증가율이 8%를 기록할 것이며, 98년에는 6~7%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함. 그러나 아르헨티나 국내외의 경제연구소들은 97년 아르헨티나의 GDP 증가율은 5.5~6.0%가 될 것으로 전망함.(Noticias Argentinas)

7월 18일 • 실업률 16.1%로 하락

97년 5월 현재 실업률이 16.1%로 집계되어, 지난 96년 10월 조사치인 17.3%에서 하락하였다고 로케 페르난데스 경제장관이 밝힘. 이와같은 실업률 하락은 95년 경제침체로부터의 강한 회복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됨.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은 1년에 두차례(5월, 10월) 집계되며, 지난 95년 5월 18.6%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한편 同 장관은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노동법이 통과된다면 금세기말까지 실업률을 6%로 하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F.T)

• 1997~2000년간, 아르헨티나의 外國人投資計劃額 123억 달러

외국인투자자들은 1997~2000년간 아르헨티나에 123억 달러를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민간 컨설팅기관인 Fundacion Invertir가 말함.

Fundacion Invertir는 외국인회사들이 97년에 63억 달러, 98년에 26억 달러, 99년에 18억 달러, 2000년에 1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밝힘. 또한 97년에 계획된 미국계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는 17억 달러, 스페인계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는 16억 달러, 영국계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는 9억 2,800만 달러에 달함.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부문은 금융 및 보험, 에너지, 통신, 자동차 및 가스·석유임.(Reuter)

• Carlos Ruckauf 아르헨티나 부통령, 튀니지 공식 방문(~26일)

동 방문은 메넴 대통령의 튀니지 방문과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에 이은 것으로, 양국간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키 위한 것임.(Reuter)

7월 22일 • 상반기 財政赤字 목표 달성

아르헨티나는 97년 상반기 13억 1,000만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 IMF가 차관제공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재정적자 목표(14억 달러)를 달성함.(F.T)

7월 24일 • 6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9.8% 증가

6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8% 증가했으며, 97년 상반기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했다고 경제부가 발표함.(Reuter)

7월 25일 • 外債 2/4분기말 현재 997억 달러

아르헨티나의 총외채는 2/4분기말 현재 99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경제부가 밝힘. 對IMF 부채는 62억 달러, 對IADB 부채는 50억 달러에 달함.(Reuter)

• 97년 상반기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출 급증

97년 상반기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실적은 3억 1,775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함. 컬러 TV, 승용차, 직물 등 3대 주력품의 수출이 대폭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합성수지, 오토바이, 건설기계, 자동차부품, 공구 등의 수출이 고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신발은 수입규제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하반기중에는 언더밸류 방지를 위한 선적전검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수출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日刊貿易).

7월 31일 • 6월 공공서비스 소비 16.1% 증가

6월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전년동월대비 16.1% 증가했다고 경제부가 발표함. 97년 상반기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함. 동수치는 發電, 가스공급, 물공급, 운송 및 통신량으로 측정함.(Reuter)

칠 레

6월 26일 • 페루와의 自由貿易協商 무기한 연기

이날 갖기로 했던 칠레와 페루의 자유무역협상이 페루대표측의 요청으로 취소되어 무기한 연기됨(페루측은 안데스共同市場(ANCOM) 회원국 존속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El Mercurio)

7월 2일 • 정부 3%P 關稅引下案 제출 준비

칠레 정부는 향후 수주내에 현재의 11% 단일관세를 8%로 인하하는 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Eduardo Aninat 재무부장관이 말함.(Reuter)

• 5월 공업생산 4.5% 증가

칠레의 5월 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했다고 國家統計廳(National Statistics Institute)이 발표함. 가장 많이 증가한 부문은 인쇄 및 출판(27.7%), 산업용 화학제(26.5), 화학품(19.9%) 등임.(Reuter)

• 3~5월 실업률 6.3% 기록

실업률은 2~4월 6.0%에서 3~5월 6.3%로 증가했다고 國家統計廳(National Statistics Institute)이 발표함.(Reuter)

• 5월 인플레이션 0.2% 기록(Reuter)

• 칠레銀行協會, 싱가포르銀行協會와 양해각서 체결

칠레은행협회는 싱가포르 은행협회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함. 양국 금융분야간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결된 동 협정으로 인해 양측간 정보, 기술 및 경험의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칠레銀行協會(Somerville)는 칠레가 제조업 기반의 경제로부터 금융 및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급속하게 이전하고 있으며, 유사한 과정을 경험한 싱가포르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언급함.(Reuter)

7월 3일 • 칠레, 멕시코와 自由貿易協定(FTA) 체결 전망

칠레는 멕시코와 오는 11월까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Jose Miguel Insulza 외무부장관이 말함.(Reuter)

• 칠레 외무장관, 싱가포르 방문

Insulza 외무장관은 4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 양국간 자유무역 및 보다 긴밀한 양국관계의 구축에 관해 언급함. 칠레는 싱가포르에 銅, 해산식품 등을 수출하고 싱가포르로부터 전자제품 등을 수입함. 양국간 교역량은 지난 90년 2억 2,700만 S\$에서 95년 4억 5,700만S\$로 2배가 됨.(Reuter)

7월 4일 • 칠레-캐나다간 自由貿易協定(FTA) 발효

이날 칠레-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 동 협정은 칠레 농업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칠레 야당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7월 2일 칠레 의회에서 승인됨. 동 자유무역협정은 향후 10년에 걸쳐 칠레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약 0.15%씩 더 증가시킬 것이라고 Eduardo Aninat 칠레 재무부 장관이 말함. 또한 동 협정 체결에 따라 양국간 교역품의 약 80%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이며, 여타 품목에 대한 관세는 2004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인하·철폐될 것임. 무관세 품목들 가운데 컴퓨터 하드웨어, 전자제품, 다양한 화학제품 등이 있으며, 칠레는 10~17년에 걸쳐 캐나다의 일부 농산품에 대한 수입쿼터를 계속 유지할 것임. 동 협정은 칠레가 G7 국가들과 맺은 첫번째 자유무역협정임. 동 협정으로 인해 칠레의 기계류 및 소비재 가격

은 하락할 것이며, 이는 칠레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제금융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Aninat 칠레 재무부 장관은 말함. 지난해 칠레의 對캐나다 수출은 지난 95년 9,600만 달러에서 45% 증가한 1억 3,96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對캐나다 수입은 95년 3억 1,510만 달러에서 30% 증가한 4억 810만 달러를 기록함. 또한 동 협정은 美國, 캐나다, 멕시코를 회원국으로 하는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과도 양립가능함.(Reuter)

• 日本政府, 칠레 홍수피해에 대한 원조 제공 예정

일본 정부는 칠레의 홍수피해지역에 대한 비상원조로 100,000달러를 제공기로 결정함. 칠레는 6월 중순 폭우에 의해 야기된 홍수로 인해 18명이 사망하고 446개 주택이 파손됨.(Jiji 통신)

7월 7일 • 칠레 외환보유고, 6월 30일 현재 176억 달러로 증가

칠레의 외환보유고는 6월 한달동안 5억 200만 달러가 증가, 6월 30일 현재 175억 9,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중앙은행이 발표함. 칠레 외환보유고는 지난 95년말 148억 500만 달러, 지난 96년말 154억 7,4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음.(Reuter)

• 칠레의 對캐나다 농산물 수출 급증 전망

7월 4일 발효한 칠레-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의 결과로 對캐나다 칠레산 농산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Marc Lortie 駐칠레 캐나다 대사가 말함. 그는 칠레産 포도주 및 과일에 대한 캐나다의 수요가 상당히 크며, 對캐나다 칠레산 농업 수출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이같이 전망된다고 언급함. 그러나 밀 및 설탕을 포함한 對칠레 캐나다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칠레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18년동안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임. 칠레 정부 관리들은 현재 연 6억 7,000만 달러에 달하는 양국간 교역량이 향후 10년동안 5배 증가할 것이라고 말함. 칠레의 對캐나다 수출은 지난해 3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농업부문의 수출이 42%를 차지함.(Reuter)

7월 15일 • 美國-칠레간 연어 분쟁

美國 연어 양식업자그룹인 FAST(the Coalition for Fair Atlantic Salmon Trade)는 칠레에서 양식되는 대서양연어(Atlantic Samlon)가 生産價 이하로 수입되어 美國 연어양식산업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난 5월 12일 제소함. 이에따라 美 상무부는 장기간의 조사를 착수기로 결정함. 칠레 연어 양식업자들은 값싸고 질 좋은 연어를 美國市場에 공급하여 현재 美國 연어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칠레産 연어의 對美 수출액은 지난 86년 340만 달러에서 96년 1억 7,700만 달러로 급증함. 칠레는 세계 제2위의 연어 생산국(노르웨이 다음)이자 세계 최대 對美 연어수출국임. 노르웨이는 지난 91년 美國國際貿易委員會(ITC)의 노르웨이産 연어에 대한 덤핑판정에 따라 美國 시장 점유율이 감소함.(Reuter)

7월 23일 • 97년 상반기 무역흑자 5억 3,100만 달러 기록

97년 1~6월간 무역흑자는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한 5억 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중앙은행이 발표함. 6월 무역흑자는 구리 수출의 급증으로 전년동월(600만 달러)대비 566% 증가한 4,000만 달러에 달함.(Reuter)

7월 24일 • 住宅部 장관에 Sergio Henriquez 임명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기업가들로부터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시인, 주택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Edmundo Hermosilla를 대신하여, Sergio Henriquez가 신임 주택부 장관이 됨. (Reuter)

7월 30일 • 97년 상반기 외국인투자 전년동기대비 33% 증가

Alvaro Garcia 경제장관에 따르면, 97년 상반기 對칠레 외국인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 36억 달러를 기록함. 96년 외국인투자총액은 4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97년에는 6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칠레의 외국인투자는 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97년 상반기 동안 美예탁증서(ADR)를 통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한데 반해, 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0%가 증가함. 또한 광업부문이 칠레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업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함. 97년 상반기 투자 승인액은 총 42억 달러에 달하며, 칠레-일본 컨소시움에 의해 건설중인 Los Pelambres 銅鑛에 대한 투자 승인액이 27억 5,000만 달러에 달함.(Reuter)

7월 31일 • 6월 산업생산 6.3% 증가

6월 칠레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했으며, 97년 상반기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했다고 Sociedad de Fomento Fabril(Sofofa)이 밝힘.(Reuter)

안데스 共同市場

〈콜롬비아〉

7월 2일 • 1~6월 인플레이, 11.26 % 기록

통계청(DANE)에 따르면 97년 1~6월 인플레이는 전년동기의 14.04%보다 소폭 감소한 11.26%를 기록함. 96년 인플레이는 21.63%를 기록했는데, 政府는 금년 인플레이 목표치를 18%로 정한 바 있음.(Reuter)

7월 8일 • 1분기 外國人投資流入額, 전년동기비 29% 증가

외국인투자청(Coinvertir)에 따르면 1분기 외국인투자유입액은 전년동기비 29% 증가한 4억1,9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부문별로는 제조업부문에 1억3,400만달러, 수송 및 창고부문에 7,500만달러가 투자되었음. 國別로는 미국이 同期 총투자의 35%인 1억 4,600만 달러를 기록, 수위를 지켰으며 다음으로 4,600만달

러를 투자한 버진아일랜드가 그 뒤를 이음.(Reuter)

- 국영통신사(TELECOM), 향후 3년간 市内電話市場에 4억8,000만달러 투자
그동안 장거리 전화 및 국제전화서비스를 전담해왔던 국영통신사는 시내통화 사업에 참여키 위한 일환으로 칼리, 메데인, 마니살레스, 페레이라, 부카라망가 등 대도시에 총 50만 회선 신규전화선을 설립키로 결정함. 국영통신사는 금번 사업을 스웨덴의 Ericsson SpA사, 일본의 NEC Corp사, 캐나다의 Nortel Northern Telecom Ltd사, 독일의 Siemens AG사와 합작으로 실시키로 함. (Reuter)

7월 10일 • 97년 바나나 수출, 전년비 12.6% 증가 전망

알베르토 레온(Alberto Leon) 콜롬비아 최대 바나나수출업체(Uniban) 회장에 따르면 97년 바나나수출은 96년의 7,100만 상자(1상자=18kg)에서 8,000만 상자로 증가할 전망이다. 97년 1~5월 바나나수출은 전년동기의 1억8,000만달러보다 14.7% 증가한 2억 670만달러를 기록함.(Reuter)

• 6월 자동차판매, 22.6% 증가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6월 승용차 판매는 26% 증가한 7,493대를 기록했는데 반해, 상용차판매는 16% 증가한 4,356대에 그침. 상반기 자동차판매는 전년동기비 11.2% 증가함. 특히 한국의 대우자동차사는 260.8% 증가한 855대를 판매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으며 포드는 73.6% 증가한 814대를 기록함. 6월 자동차 수입은 59.9% 증가한 2,876대를 기록함.(Reuter)

• 1~4월 무역수지적자 감소세

통계청에 따르면 1~4월 무역수지적자는 커피수출의 급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13.3% 감소한 6억달러를 기록함. 동기 수출은 5.8% 증가한 35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특히 커피 및 석유수출은 전년비 13.1% 증가한 18억5,000만 달러를 기록함.(Reuter)

7월 14일 • 97년 GDP증가률, 당초 기대보다 낮을듯

Santander Investment社は 97년 GDP 증가률을 당초 3%에서 1.7%로 대폭 하향 조정함. 同社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현 경기침체는 40년만에 최악으로 政治經濟의 불안정이 주식시장의 전망을 계속해서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 (Reuter)

7월 22일 • 2분기 실업률 13.3% 기록

El Tiempo지에 따르면 7대도시의 실업률이 전년동기의 11.4%, 97년 1분기의 12.7%보다 증가한 13.3%로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가장 실업률이 높은 도시는 칼리로 17.4%를 기록했음. 政府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업률은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Reuter)

7월 25일 • 農業部門, 농촌폭력 및 수입개방으로 고전

고메스(Alvaro Gomez) 農業部 장관에 따르면 농업부문은 현재 점증하는 농촌에서의 폭력과 보호장벽의 인하에 따른 농산품의 경쟁력 하락 등 요인에 의

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바, 발전의 전환을 마련키 위해서는 약 6억달러의 정부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농산물 輸入은 정부가 90년 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490% 증가했는데, 이중에서도 곡물수입이 425%, 가축수입이 1,000% 상승했음.(Reuter)

7월 31일 •今年 GDP 증가률, 中南美國家中 최저치 기록 전망

금융기관연합회(ANIF)에 따르면 97년 콜롬비아 경제성장률은 중남미국가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同 연합회에 따르면 96년 경제성장률 2.08%는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였임. 금융기관연합회는 콜롬비아 經濟의 沈滯의 원인으로 세제개혁 및 노동법개정 미비, 민영화 지연 등을 지적함. 특히 법인세의 경우 중남미국가중에서 가장 높아 税金忌避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그러나 한편으로 同 연합회는 정부의 외채관리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줌.(Reuter)

•政府, 中東部 유럽에 무역사무소 설치키로

대외교역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바나나, 화훼, 석탄시장 개척을 위해 중동부유럽에 무역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인바, 무역사무소 설립은 수출진흥기구인 Proexport가 맡게 될 예정임.(Reuter)

•맥도날드社, 전세계 체인망에 콜롬비아産 커피 공급 검토

맥도날드社는 전세계 체인망에서 콜롬비아산 커피를 제공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현재 맥도날드社는 콜롬비아커피생산업자연합과 공동으로 同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Reuter)

7월 31일 •關稅收入, 密輸로 연간 10억 달러의 손실기록

삼페르 대통령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밀수로 연간 GDP의 1%에 달하는 10억 달러의 관세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바, 연간 밀수추정액은 50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추정에 따르면 현재 콜롬비아 전체 수입제품의 절반정도가 밀수로 담배의 경우 콜롬비아내에 유통되고 있는 70%가 밀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와 같이 콜롬비아내에서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폐소貨의 강세, 마약거래업자의 돈세탁, 공무원의 부정부패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Reuter)

페 루

7월 3일 •1~5월 GDP 증가률 7.2% 기록

통계청(INEI)에 따르면 今年 1~5월 GDP 증가률이 전년동기비 7.2% 증가했음. 정부의 97년 GDP 증가률 목표는 5%로 96년 GDP 증가률은 2.8%, 95년에는 7.0%를 기록한 바 있음.(Reuter)

7월 4일 •정부, 8월초 안데스공동시장에 복귀의사 밝혀

Gustavo Caillaux 상공부장관에 따르면 페루는 8월초에 안데스공동시장(ANCOM)에 공식적으로 복귀할 예정임. 페루는 92년 일시적으로 ANCOM을 탈퇴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완전 탈퇴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 페루가 ANCOM에 완전 복귀하게 됨으로써 향후 MERCOSUR와의 자유무역 협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uter)

7월 8일 • 총외채 감소추세

중앙은행에 따르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합친 총외채가 감소세에 있는바, 96년말 335억 달러에 달했던 총외채가 금년 3월말 현재 274억 달러로 크게 감소, GDP대비 비중도 55%에서 44.9%로 감소함. 중장기외채 223억 달러중 195억 달러는 공공부문, 19억달러는 민간부문, 9억 6,800만달러는 중앙은행 외채임. 단기외채 50억달러중 21억 2,000만달러는 민간금융기관, 7,000만달러는 중앙은행, 28억 5,700만달러는 기타부문 외채임.(Reuter)

7월 8일 • 상반기 외국인관광객 유입, 10% 증가

정부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외국인관광객 유입이 전년동기비 10% 증가했는데, 일일 평균 1,800명에 달함. 페루수출진흥청(Promperu)에 따르면 금년 1~6월 페루를 방문한 관광객은 32억7,730명에 달했으며 평균체류일은 10일, 평균소비액은 1,200달러에 달함.(Reuter)

7월 11일 • 1~5월 무역수지적자, 전년비 32% 감소

中央銀行에 따르면 1~5월 무역수지가 전년동기비 32% 하락한 5억 6,600만 달러에 달함. 同期 수출은 16% 증가한 27억 3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반해, 수입은 3% 증가한 32억 6,900만달러에 그침. 수입재중 소비재는 3% 감소한 7억800만달러, 원자재는 1% 감소한 13억 3,2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반해, 자본재는 17% 증가한 11억 3,900만달러를 기록함. 중앙은행에 따르면 96년 무역적자액은 95년보다 9% 하락한 19억 9,600만달러를 기록했음.(Reuter)

7월 15일 • 中央銀行, 연금기금사의 브래디채 매입 허용

중앙은행은 민간연금기금사가 기금의 5%까지 최근 신규발행된 브래디채 매입을 허용키로 했음. 현재 페루에는 5개의 민간연금기금사(AFP)가 활동하고 있는데, 기금규 모는 14억 달러에 달함.(Reuter)

7월 21일 • 연금기금사 규모, 2000년까지 2배 증가

민간연금기금사(AFP)는 93년 설립된이후 국내저축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는바, 同社의 기금규모는 2000년에 현재의 2배에 달할 전망이다. 동사는 93년 설립이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가입자는 165만9,179명, 기금은 14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각각 180만명, 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Reuter)

7월 24일 • 상반기 金生産 7.5% 증가

에너지광산부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금생산이 전년동기비 7.5% 증가한 34.317톤을 기록했음. 96년 금생산은 전년비 12.2% 증가한 64.8톤을 기록한바 있음.

페루는 현재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번째, 전세계적으로 12번째의 금 생산국임.(Reuter)

• 상반기 아연생산 20% 증가

에너지광산부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아연생산이 전년동기비 20% 증가한 42만9,000톤을 기록했는데, 96년 생산량은 전년비 9.6% 증가한 75만8,431톤을 기록한 바 있음. 페루는 현재 전세계에서 4번째로 큰 아연생산국임.(Reuter)

7월 28일 • 외환보유고 100억달러 돌파

후지모리 대통령에 따르면 외환보유고가 페루 역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음. 대통령에 따르면 이와같은 외환보유고 증가는 정부의 긴축재정정책 및 적극적인 민영화정책에 힘입은 바 큼.(Reuter)

• 후지모리 大統領, 인기도 만회 위해 세금삭감 및 임금인상책 발표

후지모리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인기도가 집권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해결키 위해 공무원임금 15%인상, 주택세 삭감책 등 일련의 인기정책을 발표했다.(Reuter)

7월 31일 • 月貿易收支 5년만에 처음으로 흑자기록

관세청에 따르면 月貿易收支가 5년만에 처음으로 7,52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에 힘입어 1~6월 貿易收支는 전년동기비 42.8% 감소한 5억1,290만 달러를 기록함.(Reuter)